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1월 미 제조 활동 예상보다 하락 폭 줄어... 주문 회복
- FinanceYahoo: 금요일 발표 예정 미 일자리 보고서, 연준 금리에 '변수'

[미국 금융]

- WSJ: 달러 강세, 엔화와 유로화는 약세

[트럼프 행정부]

- WSJ: 미 철강 기업들, 트럼프에 영국 유럽 일본 관세 부과 촉구

[원자재]

- Bloomberg: 중국 경제에 주목하면서 유가 상승세
- WSJ: 금속 가격 하락세... 트럼프 정책 변동성 예상 등으로

[미중 경제]

- Bloomberg: 미국, 중국 AI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

[중국 경제]

- WSJ: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회복 신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휴가철 배송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 CNBC: 틱톡 쇼핑으로 몰리는 아마존 판매업자들
- FinanceYahoo: 미국,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 배터리 합작에 75억4천만불
용자 제안
- WSJ: 홀푸드, 소규모 매장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Factory Activity Shrinks Less Than Forecast as Orders Expand

11월 미 제조 활동 예상보다 하락 폭 줄어... 주문 회복

- 11월 미 제조 활동이 전망치보다 위축된 폭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주문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즈니스 신뢰도가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 오늘 월요일, ISM 제조 지수는 지난 3월 이래 1.9포인트로 가장 크게 상승해 48.4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전문가 평균 전망치는 47.5였다.
- 지수가 여전히 8번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은 개선되고 있다.

- 구매관리자지수도 지난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조 활동이 지난 2년간 하락세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신규 주문 지수도 지난 5개월 이래 가장 높은 3.3 포인트 상승해 미 대선 이후 낙관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Bloomberg 기사

FinaceYahoo: Crucial jobs report kicks off December trading: What to know this week

금요일 발표 예정 미 일자리 보고서, 연준 금리에 '변수'

- 이번 주 금요일 연방 노동통계청의 11월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을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에 일자리 증가가 20만개로, 10월의 추가 월별 일자리 1만2천개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8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66%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단지 두 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 내년도 S&P 500지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그니피슨트 7종목에서 종목이 확대되면서 6,400 에서 7,000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WSJ: Dollar Strengthens; Yuan, Euro Weaken

달러 강세, 엔화와 유로화는 약세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토요일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하려는(최근에 브릭스 국가들) 국가들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 주요 통화가 요동치고 있다.
-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3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브라질의 리알도 올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엔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한몫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이번 주 들어 발표되는 일자리 보고서, 건설 관련 지출, 그리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리들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U.S. Steelmakers to Trump: Bring On More Tariffs
미 철강 기업들, 트럼프에 영국 유럽 일본 관세 부과 촉구

- 미 철강 회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 방안을 지지하며, 유럽, 영국, 일본산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 철강 협회를 통해 요청하고 있다. 이 협회는 스틸 다이내믹과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Nucor 등이 회원사로 있다.
-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일부 철강이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미 철강 회사들은 협회를 통해 새로운 철강 관세 부과는 미 철강 시장을 진작하고, 다른 국가들이 시행해 온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들은 트럼프의 2018년 관세 부과를 지지했었으며, 이에 따라 미 철강 가격 상승, 수익 증대, 일자리 증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WSJ 기사

[원자재]

Bloomberg: Oil Rises With Focus on China's Economy, OPEC+ Supply Meeting
중국 경제에 주목하면서 유가 상승세

- 중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했다. 트레이더들은 또한 이번 주 목요일 OPEC+의 회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주 3% 하락한 후 중국의 제조 활동 지수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배럴당 72달러를 상회했다.
- 이런 가운데 OPEC+는 생산량 관련 회의를 나흘 연기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OPEC+는 3번째로 생산량 증가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Metal Prices Slide; Significant Volatility Expected on Trump, China Policies
금속 가격 하락세... 트럼프 정책 변동성 예상 등으로

- 금속 가격이 하락 중이다. LME(London Metal Exchange)에서 3개월 구리 선물은 0.5% 하락한 톤당 8천9백73불, 3개월 알루미늄 선물은 톤당 2천

66달러 50센트를 기록 중이다.

- 내년에 금속 가격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강력한 달러로 인한 압력,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 변화 등의 변수 때문이다.
- 향후에 강달러가 달러 표시의 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잠재적인 연기, 트럼프의 정책 변화로 인해 올해 끌어올렸던 친환경 심리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격 상승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WSJ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US Tightens Curbs on China's Access to AI Memory and Chips Tools

미국, 중국 AI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

-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AI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 미 상무부는 고대역폭 메모리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 또한 중국을 대신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체 140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제는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따라 미국 회사들의 해외 시설에도 적용된다.
-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특히 2019년부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회사 수가 증가했었다.
- 미 상무부 장관 Gina Raimondo는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첨단 기술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Manufacturing PMI Gauge Signals Pickup in Growth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회복 신호

- Caixin Media와 S&P Global이 월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구매관리자지수가 51.5로, 10월 50.3보다 상승했다. 구매관리자지수가 50 이상이면 경제 활동이 확장된다는 뜻이다.
- 총 신규 주문 지표도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들이려는 수입 업체 덕분에 외부 수

요도 늘어났다. 제조업체들의 기업 신뢰도도 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 그러나 Caixin Insight Grou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Wang Zhe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압박받고 있다. 제조업 고용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이 노동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Sky-High Holiday Shipping Fees Are Hitting Earlier and Earlier

휴가철 배송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 미 소매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률을 넘는 배송비 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 회사 AFS Logistics의 최고 분석 책임자 Mingshu Bates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누적 배송비 인상률은 약 33%에 달한다.
- 여행 가방 브랜드 Paravel의 COO Kevin Donnelly는 “배달 성수기 추가 요금이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에 가까운 시기에 부과되는 건 문제가 있다. 11월 초는 배달 성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배달 성수기 추가 요금이 적용된 기간은 111일 즉,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 물류 회사 Shipware의 수석 컨설턴트 Paul Yaussy는 배송비에서 추가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약 20%에서 2024년 50%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 FedEx와 UPS 같은 택배 업체는 이른 연말 할인 시즌 시작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Why Amazon sellers and retailers are flocking to TikTok Shop despite looming U.S. ban

틱톡 쇼핑으로 몰리는 아마존 판매업자들

- 틱톡의 쇼핑 서비스(TickTok Shop)로 소매업체들이 몰리고 있다. 중국의 틱톡은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장 조사 기관 ecommerceDB는 “틱톡 쇼핑은 출시 15개월 만에 거대한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틱톡 쇼핑의 올해 총 상품 거래액 (Gross Merchandise Volume, GMV)이 두 배 이상 증가한 500억 달러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 틱톡 쇼핑은 아마존 판매자들에게 낮은 수수료와 제품 할인 혜택 지원을 제안하며 틱톡 쇼핑 사용을 설득하고 있다.

- 아마존 대변인 Mira Dix는 “아마존에게 판매 파트너는 매우 중요하다. 아마존은 판매 파트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FinanceYahoo: US proposes \$7.54 billion loan to Stellantis, Samsung SDI battery joint venture

미국,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 배터리 합작에 75억4천만불 융자 제안

- 오늘 월요일, 미 에너지부(U.S. Energy Department)가 인디애나주에 두 개의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의 합작 투자에 최대 75억4천만 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공장에선 스텔란티스 전기차에 사용될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FinanceYahoo 기사

WSJ: Whole Foods Chases Shoppers With Minimarket Concept

홀푸드, 소규모 매장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다

- 홀푸드가 도시 밀집 지역에 소규모 매장을 오픈하는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다. 홀푸드는 소규모 매장을 더 많이 오픈해 기존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 매장 방문을 추적하는 데이터 회사 Placer.ai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주 방문하지만 몇 가지 품목만 구매하는 '채우기 쇼핑(Fill-in shopping)'이 증가하고 있다.
- 2019년에 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소비자들의 방문 횟수는 11% 증가했지만, 쇼핑 시간은 줄어들었다.
- 전문가들은 소규모 매장이 핵심 상품에 집중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부동산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홀푸드는 맨해튼의 첫 번째 소규모 매장이 오픈 이후 매주 매출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관세에...중국 등 아시아, '원유 수입' 반사이익 얻나

"美 대신 정제시설 갖춘 중국·인도로 갈 전망"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 예상..."소비자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으로 가던 이들 국가의 원유를 아시아 국가들이 대신 저렴하

게 사들이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이 석유 수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러한 시장 반응을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원유 공급국 1·2위로, 각각 미국의 전체 원유 수입의 52%와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시장정보회사 케플러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의 수송 운송분 가운데 각각 61%, 56%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